

경로당에 햅쌀 지원 가능해진다

“실제 경로당 지원 정부미,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햅쌀 지원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정된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



으로 햅쌀 등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해당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밥을 지으면 딱딱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리아 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양행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으로 부터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책자를 받고 있다.

2차 북미회담 견인 중재 외교 펼친다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올해 마지막 해외순방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주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외교 강행군을 펼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떠나는 올해 마지막 순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비핵화 중재 외교력을 선보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이번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내년 초로 그려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물밑 협상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로우키(low-key)’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연내 김정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에 참석한다.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또 G20 참석차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3개국 순방에 나서며 경제외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번 순방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다. 우리나라와 지구 정반대 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한 번에 이동하기 어려운 체코와 뉴질랜드를 중간에 기착한다. G20 참석 전 체코 프라하를 비공식 방문하며, 참석 후에는 뉴질랜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형 및 세계 경제적 기회에 대한 G20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양측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에서 경제 외교에도 집중한다. ‘포용국가’를 실천하며 선도적 위치에서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 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문건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26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3차 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원안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시외버스 감차로 인해 도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171개소 중, 정비가 완료된 72개소 지방하천 중, 세월교를 이용한 하천의 개소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

구하였으며, 세월교를 이용하는 진안군 정지천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지 한달이상 지난 현시점에서도 예산지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명시이월예산 중, 토지보상금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토지보상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시군과 도에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사업진행을 위한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활용 권장을 통해 불편사항 및 민원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인 지역개발지원사업, 도시개발지원사업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사업별 설명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농산경제위 농축수산물식품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제35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물식품국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질의했다.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은 “올해 농림분야 신규사업에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정책사업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삼라농정 시군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했음에도 과다 계상한 것”을 지적하며,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나기하 의원(군산1)은 “현재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다 완성되기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편성했다”며, “예산낭비를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12개 시군의 마을 조성 현황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다.

오광근 의원(정주2)은 “지난 민선6기 삼라농정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홍보예산으로 1억5천만 원을 투자했음에도 올해 중역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제는 삼라농정에 대해 홍보성 예산 투자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최근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농어민신문을 비롯해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신문들의 보급수가 늘고 있다”며, “중복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라캠프 운영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정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적하며, 농촌지역에 청년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가뭄취약 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이 시군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시군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